

다산(茶山) 제자 이강회(李綱會)의 이용후생학(利用厚生學)¹⁾

- 선설(船說)·거설(車說)을 중심으로 -

안대회(安太會, 명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 19세기 실학의 한 국면
2. 이강회의 삶과 주요 저작
3. 수레 유통과 선박 제도에 대한 주장
 - 1) 수레 유통의 필요성과 제작 방법
 - 2) 선박 제도에 대한 분석
4.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주장과 논리
5. 북학과(北學派)와 정약용 북학론(北學論)의 계승문제
6. 맺음말

1)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실학학회의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으로 『한국실학연구』 10집에 실린 논문을 전재한 것이다. 당시 학회에서 임형택 교수를 비롯한 장동우 선생 등의 질의와 보충설명으로 내용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한다.

1. 19세기 실학의 한 국면

최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중요한 제자인 이강회의 저작이 발굴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세기 초반의 위대한 학자인 다산의 훈도를 받은 향촌 학자 이강회의 저작이 속속 발굴되어 공간되면서²⁾ 그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학자들 중심으로 전개되던 실학이 정약용을 거쳐 지방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음을 입증하게 되었다. 특히 18세기 서울과 경기 지역 학자인 박지원(朴趾源)과 박제가(朴齊家)를 중심으로 개화(開花)한 이용후생(利用厚生)의 학문이 국토의 최남단 향촌에서까지 전개되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은 실학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박지원과 박제가 등 북학파(北學派) 학자를 주축으로 전개된 이용후생학이 19세기 들어 쇠퇴의 길에 들어섰다는 통념과는 달리 그 정신이 면면히 계승되었음을 밝혀주는 증거가 곳곳에 남아 있다. 그들을 계승한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서유구(徐有鑾)와 이규경(李圭景)인데, 여기에 자료의 발굴로 인하여 이강회를 첨가하게 되었다. 이들은 북학론의 전개와 상공업의 촉진, 편리한 생활을 위한 물품의 제작 및 기술교육을 주장함으로써 부국강병과 개인의 복리증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강진과 흑산도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의 낙후된 현실을 목도하는 한편, 해안에 표류한 외국선박을 관찰한 결과물을 통하여 이강회는 실용적 학문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이강회는 선박과 수레의 제작과 이용에 관한 일련의 논문을 써서 운송수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18세기 이후 심해지는 경향(京鄕)간 학문의 단절상이 극복되는 일면을 그에게서 확인하게 된다. 새로 발굴된 저작의 분

2) 그 첫 작업으로 김형만·김정섭·안대희가 번역한 『雲谷雜著』-신안향토사료지(신안문화원, 2004.12.30)가 있다. 신안문화원에서 이강회의 저작을 연차적으로 번역하고 있다.

석을 통해 이강회는 19세기 학술사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한 학자로서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학자임이 드러났다.

이 논문은 이강회의 학문 세계를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학계의 첫 논문으로서 이강회의 이용후생학을 중심으로 그가 전개한 학문의 실상을 살펴본다. 우선 그의 인생궤적과 저술을 검토하고 본문에서는 선설(船說)·거설(車說)을 소개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2. 이강회의 삶과 주요 저작

이강회 학술의 실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그의 삶과 저작부터 살펴본다.³⁾ 이강회는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서 가르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적지 않은 수의 제자를 교육하였는데 이청(李淸)이나 이강회(李綱會), 황상(黃裳)이 빼어난 제자로 손꼽힌다. 정약용의 제자들에 관해 기록한 「다신계절목(茶神契節目)」에는 제자들의 좌목(座目)을 기록하였는데 이강회의 형제를 좌목의 첫 자리에 배치하였다. 좌목에 따르면,

李維會 字 夔 甫 兄

甲辰生(1784~1830)

李綱會 字 紘 甫 弟

己酉生(1789~?)

3) 이강회의 주요 저작에 대해서는 줄고, 「이강회의 『유암총서』·『운곡잡저』 해제」(앞의 책, 13~30면)에 소개되었다.

로 되어 있는데 광주(廣州) 李氏로서 이준경(李浚慶)의 후손인 이보만(李保晩)의 5대 손이다. 입향시조(入鄉始祖) 이보만이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사위로서 보길도로 은거한 장인을 따라 강진에 우거함으로써 이 집안은 강진 사람이 되었다.⁴⁾ 이강회는 형인 이유회(李維會)와 더불어 제자 목록의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올라가 있을 만큼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은 고족(高足)이었다.

임형택 교수가 정약용이 강진 시절에 배출한 제자들의 활동을 연구한 논문에서 그 제자들의 학문적 활동과 그 결과를 대략 밝혔는데 이강회 역시 논의되었다.⁵⁾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이강회의 학술저작이 발굴되지 않았기에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 이 논문을 제외하면, 이강회를 주목한 저작은 전무하다.

그 결과 최근까지 불행하게도 이강회는 이청이나 황상에 비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청과 황상의 경우 『정관편(井觀編)』과 『치원유고(卮園遺稿)』 같은 저작이 발굴되어 학계의 논의를 거친 반면,⁶⁾ 그를 평가할 저작이 발견되지 않은 이강회는 아예 논의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제 『유암총서(柳菴叢書)』·『운곡잡저(雲谷雜著)』를 비롯한 일련의 저작이 발굴

4) 박능서, 『韓國系行譜』, 보고서, 351면.

5) 임형택, 「정약용의 강진유배기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한국한문학연구』 21, 한국한문학회, 1998.(『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에 재수록) 한편, 임형택은 2005년 9월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에서 'Korea in Travel Writing'라는 주제로 개최된 심포지움에서 「茶山學團에서 海洋으로 學知의 열림 : 이강회의 경우」를 발표하였다.

6) 陳在教, 「茶山學의 형성과 卮園 黃裳」, 『大東文化研究』 41, 27~60면, 2002.

됨으로써 그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내려지게 되었다. 더구나 그 저작은 수준과 의의가 매우 높다. 강진과 흑산도를 근거지로 학문에 종사함으로써 중앙 학계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발견된 저작만으로도 그는 19세기 학술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위치를 점한다.

정약용의 제자로서 이강회의 이름은 여러 곳에 등장한다. 우선 『사암선생유보(俟庵先生年譜)』에 1813년 겨울 여러 해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가 완성되었는데 이강회와 윤동(尹洞)이 저술을 도왔다고 밝혔다. 그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정약용은 중형(仲兄) 정약전(丁若銓)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를 두고 발분하여 경예지학(經禮之學)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논어(論語)』 저술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는 사서(四書)라는 밭에는 버려진 나락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핑보(絳甫, 이강회의 字)가 과거를 보고 오더니만 발분하여 경학(經學)·예학(禮學)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에게 떠밀려서 안경을 쓰고 『논어』 저술에 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⁷⁾

이 편지에는 이강회가 더 이상 과거보기를 포기하고서 경학과 예학의 연구로 인생의 방향을 선회하였으며, 정약용으로 하여금

7) 丁若鏞, 「答仲氏」, 『與猶堂全書』 제1집 권20, 장29. “至今不爲論語之役者, 謂四書之田, 必無遺棄矣. 絳甫自科選, 發憤歸身於經禮之學, 爲其所困, 不得不著鑿鑿而臨之.”

『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의 저술에 박차를 가하도록 추동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빼어난 경학저작이 이강회의 추동과 도움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것인데, 이강회와 운동이 함께 교감하였음을 밝힌 『논어고금주』 사본이 현존하여 그 사실을 입증한다.⁸⁾

정약용도 밝힌 바 있듯이, 과거를 준비하다가 경학과 예학의 연구로 인생의 방향을 돌린 이강회는 이후 적극적인 저술활동을 벌인다. 그의 인생경로를 『유암총서』·『운곡잡저』에 산견(散見)되는 기록을 통해 정리해본다. 그는 1819년 2월에 표류한 중국인 시홍량(施洪量)에게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나의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강회이며 호는 운곡일인(雲谷逸人)이요, 주소는 강진현 남쪽 모퉁이이고, 나이는 31세요. 일찍이 과문(科文)에 도망하였다가 느지막이 경술(經術)로 돌아왔소. 무인년(1818) 겨울에 이 섬에 은거하여 한창 『주례(周禮)』를 공부하는 중이오.⁹⁾

아아, 나는 백 리 멀리 고향의 집을 떠나 다섯 달 동안 바닷가 집에 숨어서 한창 『주관연의(周官演義)』를 쓰고 있는데 아직 한 편도 끝내지 못했소. 『천관(天官)』은 이미 10권을 얻어 책상자에 보관하고 있소.¹⁰⁾

8) 日本 大阪 市立 中之島圖書館에 원본 13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그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9) 「贈言施洪量」. “鄙姓李, 名綱會, 號稱雲谷逸人, 居康津縣南陬, 時年三十一. 早逃科文, 晚歸經術, 歲戊寅冬, 隱居是洲, 方攻周禮.”

10) 「贈言施洪量」. “嗟! 余百里去鄉, 五朔離家, 隱滄海屋, 方述周官演義,

이 기록을 종합할 때, 이강회는 강진 사람이고, 자는 핑보(絳甫), 호는 운곡(雲谷)이며, 30세 되던 1818년 겨울에 강진을 떠나 흑산도로 건너가 장사를 업으로 하는 문순득의 집에 기숙하였다. 『운곡잡저(雲谷雜著)』에 저자로 표시된 격정자(擊磬子)는 그의 별호(別號)로 추정되고, 『유암총서(柳菴叢書)』의 유암은 그의 택호(宅號)로 추정된다. 흑산도에 들어온 이래 『주례』를 공부하며 『주관연의(周官演義)』의 저술에 착수하였다.

강진 사람인 이강회가 외진 흑산도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정약용과 자신의 말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출세를 위한 과거공부를 포기하고 경술(經術)연구로 인생의 방향을 선회한 것과 깊은 관련이 될 것이다. 방향을 선회한 시기는 대체로 1818년 여름이다. 이후 다산을 도우면서 학문활동을 하던 그가 강진을 떠나 흑산도로 이주하였다. 그런데 그가 흑산도로 들어간 1818년 겨울은 공교롭게도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나 강진을 떠난 9월 이후의 시점이다. 입도(入島)의 이유를 이강회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나의 판단으로는, 분명 정약용으로부터 받은 학문적 감화와 믿고 의지하던 스승의 귀향으로 인한 갈등 및 본격적인 저술활동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시도의 의지가 겹쳐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그가 기숙한 곳은 다름 아닌 정약전이 큰 도움을 받은 상인 문순득(文淳得)의 집 바로 거기였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게 만드는 증거가 바로 섬에 들어간 이후의 열정적인 저술활동이다. 현재 전하는 그의 저술의 대부분은 1818년과 1819년 사이에 걸쳐 있다. 그 저술들은 모두 부국강병(富國強兵)과 민생의 안정을 위한 경제적(經世的) 내용을

未了一篇, 天官已得十卷, 箚藏”

담았다. 또 이 지역에 출몰하는 외양선에 깊은 관심을 가져서 표류한 중국 상선을 직접 조사하여 관아에 보고서를 올리기도 하고, 지역 주민을 위하여 흑산도의 민정(民情), 군역(軍役)의 폐단을 상부에 청원하거나 보고하는 공문서를 이두문(吏讀文)으로 쓰기도 하였다. 이들 문서는 당시의 정황이 매우 소상하게 드러나 이 시기 전남 해안도서 지역의 사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다.

이렇게 1819년을 전후한 시기에 적지 않은 경제적 저작을 남긴 이강회의 이후 행적은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정규영(丁奎英)이 편찬한 『사암선생연보』에는 정약용이 75세로 운명하던 날 문인(門人)인 이강회가 서울에 있었는데 큰 집이 기울어 덮치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고 하였다.¹¹⁾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그는 어느 시점에서 흑산도와 강진을 떠나 서울에도 출입하며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이후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떠한 인생경로를 거쳤는지는 현재로서는 밝힐 만한 자료가 없다. 차후에 본격적인 발굴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강회의 주요저작을 살펴본다. 이강회의 주요 저작 가운데 현재 발굴된 것은 『탐라직방설(耽羅職方說)』, 『현주만록(玄洲漫錄)』, 「운곡선설(雲谷船說)」, 「거설답객난(車說答客難)」, 「제거설(諸車說)」, 「방언보(方諺補)」가 있다. 기타 상부관아에 올리는 공문서 묶음과 자신의 생각을 밝힌 짧은 글이 몇 편 있다.¹²⁾ 앞의 두 저작은 일본 경도대(京都大) 하합문고

11) 『丁茶山全書』 年譜, 문헌편찬위원회, 236면.

12) 이외에도 임형택 교수 소장의 『勿欺堂要纂』 일부가 이강회와 관련한 저작이다.

(河合文庫)에 소장된 단행본 저작이고, 뒤에 제시한 몇 종의 저작은 『유암총서』와 『운곡잡저』에 분산 수록되어 있다.¹³⁾ 이 강회가 필사한 것으로 보이는 『유암총서』와 『운곡잡저』에는 정약용과 정약전의 저술까지 포함되어 있다. 정약전이 지은 『표해록(漂海錄)』과 『송정사의(松政私議)』는 이 책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유일본이다. 또 정약용의 송담한역(俗談漢譯) 저술인 『백언시(百諺詩)』는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수록된 『이담속찬(耳談續纂)』의 초고본(草藁本)으로 내용에 적

13) 이 책은 모두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233번지에 살고 있는 문채옥(1920년생)씨 소장 필사본이다. 문채옥 씨에 관해서는 최성환, 「표해록의 후손 문채옥씨를 찾아」(『新安文化』 제13호, 2003, 12. 8. 62~67면.)에 소개되어 있다. 두 책에 수록된 개별 저작 목록은 다음과 같다.

『柳菴叢書』: 1. 漂海始末: ★丁若銓 著
2. 雲谷船說
3. 車說答客難
4. 諸車說

『雲谷雜著』: 卷之一

1. 상부 관아에 보낸 公文書 39편(1면~34면)
2. 松政私議: ★丁若銓 著(34면~40면)

卷之二

1. 車說答客難
2. 贈言施叅量
3. 無題說
4. 謹說示文絢
5. 問答
6. 百諺詩: ★丁若鏞 著
7. 方諺補
8. 論 3편: 項伯論, 范增論, 項羽論
9. 文字鈔(71-81)
10. 기타: 襲合之禮, 天時干支, 字形學, 五霸姓名, 吏讀.

지 않은 출입(出入)이 있어 주목된다.¹⁴⁾ 저작의 내용을 대략 소개하면 이렇다.

1) 『탐라직방설(耽羅職方說)』: 2권 1책으로 탐라 즉 제주도의 인문지리환경을 논한 저술이다. 표제는 운곡총서(雲谷叢書)-탐라직방설(耽羅職方說)로 되어 있다. 1권은 제주도의 인문, 경제, 군사적 지리를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2권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큰 옥사인 상찬계(相贊契) 사건의 시말과 그에 연관된 인물에 대한 전기를 수록하였다.

2) 『현주만록(玄洲漫錄)』: 1819년 2월 흑산도 해안에 표류한 중국 배에 올라 배의 요모조모를 관찰하고, 선원과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하였다. 중국 선박의 제도를 상세하게 기술하되 조선 선박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서술하였다.

3) 「운곡선설(雲谷船說)」, 「거설답객난(車說答客難)」, 「제거설(諸車說)」: 이 저작들은 외국의 선박 제조법과 수레사용에 관한 주장을 담은 논문이다.

4) 「방언보(方諺補)」: 이 저술은 우리 속담을 4언 2구의 한문운어(漢文韻語)로 바꾸어 표현하고 그 의미를 풀어 설명하였다. 한역된 속담의 수량은 69수(首)이다. 이강회의 「방언보」는 정약용의 『백언시(百諺詩)』에 자극을 받아 저술되었다.¹⁵⁾

14) 구체적인 내용과 차이는 필자의 해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漂海錄』은 최덕원, 『남도의 민속문화』(밀알, 1994.9.)의 제6장 「문순득이 표해한 노정과 그 지역의 생활풍속 및 언어연구」에 번역과 분석이 실려 있고, 『松政私議』는 『문헌과해석』 20호, 2002년 가을, 208~225면에 필자에 의한 번역문과 해설이 실려 있다.

15) 「方諺補序」에서 이강회는 “내가 籜翁(丁若鏞)께서 지은 百諺詩(『耳談續纂』의 原名이다)를 보았다. 그 뒤 비루한 시골사람들이 茶飯事로 말하는 諺說을 들어보니 거기에 빠진 것이 많았다. 그로 인해 69수를

조선 후기 전라도 지역의 속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16)

문순득의 후손 문채옥씨가 소장하고 있는 『유암총서』와 『운곡잡저』는 그가 지은 저작의 초고본(草藁本) 가운데 일부로서 1819년 여름에 필사한 자신과 스승의 저작을 체계없이 엮었다. 완성본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스승으로 섬기는 정약용 형제의 저술 3종이 함께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운곡잡저』와 『유암총서』처럼 총서(叢書)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타인의 소규모 저술을 하나의 체계로 편집한 것은 이 시기 경화세족(京華世族)의 새로운 학술경향에 부합한다. 그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쓴 저작을 총서의 형태로 수집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약용의 군사관계 저술 『비어고(備禦考)』 권7에는 ‘영길리설(唅唻說)’이 실려있는데 1816년 도합도(叻哈島)에 출몰한 영국 군함을 묘사한 기록을 『운곡만필(雲谷漫筆)』에서 인용하였다. 이 『운곡만필(雲谷漫筆)』은 틀림없이 이강회의 저작이다. 유사한 내용이 「운곡선설」에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기사 내용 가운데 종형(從兄) 이덕회(李德會)의 전문(傳聞)을 기록하였으므로 이강회의 저작임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얼어서 보완하고 이름을 方諺補라고 하였으니 후세 사람들이 보아주기 바란다.”라고 저술동기를 밝혔다.

16) 조선 후기에는 우리 속담을 이렇게 漢文으로 번역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만을 들어도, 洪萬宗의 『旬五志』, 李瀾의 『東諺解』, 李義鳳의 『東韓譯語』, 李德懋의 『例上方言』, 丁若鏞의 『耳談續纂』, 趙在三의 『松南雜載』, 편자미상의 『東諺解』 등이 있다. 이강회가 저술한 「方諺補」는 공개가 되지 않은 이유로 한 번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다. 조선 후기 漢譯俗談의 새 자료로서 앞으로 주목을 요한다.

그렇다면 지금 전하는 저작 외에도 이강회의 저술이 더 발굴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3. 수레 유통과 선박 제도에 대한 주장

현전하는 이강회의 저작을 개괄하여 볼 때 저작을 일관하는 사상과 관심이 확연하게 떠오른다. 한만(閑漫)한 문예취향이나 사변적 사유, 역사적 고찰을 지양하고, 실용을 위주로 한 민생, 기술, 제도, 국방과 관련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적 자세를 보인다. 그 학문에 대한 확고한 견해가 강한 어조로 피력되고 있다. 특히, 전라도 속담을 한역(漢譯)한 「방언보(方諺補)」와 제주도의 지리를 밝힌 『탐라직방설(耽羅職方說)』을 제외하면, 선박과 수레의 제작에 관한 저작이 크게 부각된다. 『탐라직방설』도 “재용(財用)과 구곡(九穀) 육축(六畜)의 수효를 파악하여 그 이해(利害)를 두루 아는데”¹⁷⁾ 목적을 뒀으로써 실용적 학문을 지향하였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박과 수레의 제작을 다룬 그의 저작을 분석하여 그에 나타난 사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주만록(玄洲漫錄)』과 「운곡선설(雲谷船說)」은 선박제도, 「거설답객난(車說答客難)」과 「제거설(諸車說)」은 수레에 관한 전문저작이다. 이들이 지어진 시기는 본문을 통해서 1818년 경에 「거설답객난」과 「제거설」을 지은 것으로 추정되고, 1818년 겨울에는 「운곡선설」, 1819년 봄에 『현주만

17) 『耽羅職方說』. “竊稽周官職方之法, 掌天下之圖, 以掌天下之地, 辨其邦國都鄙四夷八蠻七閩九貉五戎六狄之人民, 与其財用九穀六畜之數, 周知其利害.”

록』을 지은 것으로 확인된다. 선박은 해상교통 수단이고, 수레는 육상교통 수단으로 그가 남긴 저작 가운데 교통수단인 선박과 수레를 집중하여 논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저자는 이 두 운송수단이 국가경제와 부국강병에 긴밀한 도구라고 판단하였다. 시기적으로 앞서 이루어진 수레에 관한 주장을 먼저 살펴보고, 뒤를 이어 배의 제작에 관한 주장을 검토한다.

1) 수레 유통의 필요성과 제작 방법

수레와 선박의 제도에 관한 글을 쓰려는 이유를 이강희는 이렇게 밝혔다.

삼가 경전을 살펴보니 “쇠를 녹여서 칼을 만들고 흙을 응고시켜 그릇을 만들며, 수레를 제작하여 육지를 다니고 배를 제작하여 물을 다닌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성인이 만드신 물건이다. 배와 수레의 이로움을 통해서 성인께서 천하를 다스린다. 애석하게도 「동관(冬官)」 한 편이 빠져서 남아 있지 않는데 겨우 주워 모아놓은 자료조차도 겨우 수레에 관한 것뿐이라서, 선박의 제도에 관해서는 방불한 것조차도 얻을 수 없다.18)

그는 수레와 배가 성인이 천하를 경영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작법을 서술한 서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18) 이강희, 「雲谷船說」 引文. “謹案經曰, 鑠金以爲刀, 凝土以爲器, 作車以行陸, 作舟以行水, 此皆聖人之所作也. 舟車之利, 聖人之所以濟天下也. 惜乎! 冬官一篇闕而不存, 惟其綴拾僅及車輿, 舟舶之制, 無由得其彷彿也.”

않았다는 점과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선박제도가 밝혀져 있지 않은 실태를 안타까워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이 수레와 배에 관해서 저술하지 않을 수 없다는 동기를 밝혔다.

수레의 통행과 제작의 당위성을 주장한 글은 「거설답객난(車說答客難)」(이하 「거설」이라 함)과 「제거설(諸車說)」 두 편이다. 「거설」은 『유암총서』와 『운곡잡저』 권2에 각각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상 차이는 없다. 두 편의 글이 쓰인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문순득의 언급이 실린 정황으로 보아 흑산도에 들어간 이후로 추정하게 된다.

두 편의 글 가운데 내용이 풍부하고 사례가 상세하게 갖추어진 글은 「거설」이다. 모든 나라에서 수레를 사용하는 실정인데 조선만이 수레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하여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비판하였다. 글의 전반에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입장이 깔려있는데 그 입장에서 수레를 사용해야 함을 힘주어 주장하였다. 요순 임금으로부터 전해오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제도를 중국에서 배우지 않고 옛 경전에서 상고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조선 땅에서 시행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를 논리정연하게 피력하였다.

수레 사용을 둘러싸고 18, 19세기 학자들의 논쟁이 분분하였다. 유형원(柳馨遠), 유수원(柳壽垣), 김육(金瑢) 이후 이광려(李匡呂), 박지원(朴趾源), 박제가(朴齊家), 홍길주(洪吉周)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수레 사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따라서 풍부하게 논의되었다. 박제가를 비롯한 학자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이강회가 다시 수레에 관한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수레 사용의 시급함에 대한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

해서가 아닐까? 수레에 관한 그의 논의는 기존 학자의 논의에 비해 풍부한 사례와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레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현실상 제작과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데 따른 난점을 해결하는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수레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질적이고 유용한 근거를 조목조목 들이대는데 비중있게 다루어진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수레를 사용하면 위로는 국가, 가운데로는 수령, 아래로는 일반 백성이 운송비용을 줄이는 혜택이 있다.
- 2) 미곡과 소금을 비롯한 온갖 물자의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 3) 납세(納稅)를 원활하게 하여 물자수송의 과중한 고통으로부터 백성을 구제할 수 있다.
- 4) 온갖 상품의 유통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물가의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그 가운데 당시 전라도 지역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수레 사용의 불가피성을 논하는 대목을 검토해본다.

탐라(耽羅)에서 조정에 바치는 물품이 한 해 일백 바리[駟]입니다. 탐라의 배가 달량포(達梁浦)에 정박하면 농가를 뒤져서 농민들을 징발하여 등을 내리치고 뺨을 후려갈기며 구불구불 줄을 지어 길을 따라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이 때가 되면, 모내기를 할 자는 모를 내지 못하고, 김을 맬 자는 김을 매지 못한

채, 닭을 넘어 달아나 숲속에 숨어서는 당해야 할 욕된 일을 피합니다. 도호부(都護府)에 도달한 뒤로는 강진읍 한 고을로 계산하면, 짐 한 바리의 태가(駝價)가 이천 오백 전(원주: 25량이다)으로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백 바리면 그 값이 얼마겠습니까? 그리하여 국가에서는 대동정미(大同正米)를 쌓아두었다가 준절(準折)하여 주는데, 일백 바리에서 들어오는 값을 모두 합하면 거의 3백여 관(貫)(원주: 삼천 량)에 이릅니다. 이 탐라의 공물로 인하여 아래로는 백성들의 농사시기를 이처럼 심하게 빼앗고, 위로는 국가의 경비를 이렇게 많이 소비합니다. 만약에 수송에 드는 비용의 3분의 1을 던져 수레 열 대를 만들고 달랑포의 진영(鎭營)에 두었다가 본진(本鎭)으로부터 서울까지 전담하여 수송하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여 10년 동안 얻은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 고을의 농민들이 모두 기뻐하며 춤을 추고 농사를 즐기며 편안할 테니 그 이익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19)

제주도에서 강진을 거쳐 서울로 운반되는 공물을 수송하기 위해 강진 일대의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고통의 실상과 과대한 비용을 계산한 다음, 수레를 제작하여 수송하면 얻게 되는 효과

19) 「車說」. “夫耽羅貢獻，歲每百駝，耽人船泊達梁，搜括農民，鞭背批頰，回回曲曲，鱗次路負。當時之時，秧者不秧，耨者不耨，踰牆匿藪以避其辱。及達于都護之府，以康津一邑言之，一駝之價，例定二千五百錢(二十五兩也)，則百駝之錢，厥數幾何？於是國家以大同正米，儲置而準折，總計百駝之所入，將近三百餘貫(三千兩)，爲此耽羅之貢，下奪民時若是其甚，上費經用若是其多。若捐三一之費，制車十乘，置之達梁之鎭，自本鎭，專達于京師，則十年所得，其錢幾何？三邑農民，皆歡欣蹈舞，樂業安堵矣。其利又幾何？”

를 제시하였다. 수레 사용의 현실적이고 명약관화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종 찬물(饌物) 과물(果物)의 공납과 연경(燕京), 왜인(倭人)과의 무역물, 동래(東萊) 종성(鍾城) 호시(互市)의 물품을 수송하기 위한 태가(駄價) 및 국가의 경사 때마다 각 지방관이 봉진(封進)하는 물품의 태가 비용을 비교하여 수레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이익을 옹호하였다. 미곡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기갑년(己甲年)(1809년과 1814년) 사이의 대흥년에 전라도 지역간에 미곡 값이 세 배나 차이가 나는 현상을 수레이용의 문제와 연결시켜 논하기도 하였다. 또 수레를 이용함으로써 상품의 유통이 원활해져서 안으로는 가계와 국가의 부유함을 가능하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외국상선-번박(番舶)-과 통상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 수레 사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뒤를 이어 이강회는 조선의 상황상 수레를 제작하여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여덟 가지 주장에 대하여 그는 조목조목 비판하고 적극적인 제안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공인(工人)의 교육과 기계의 제작이다.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녹봉을 공인에게 나누어주고 공인의 지위를 높여주며, 물건마다 공인의 이름을 새겨서 기계의 정교함과 거품을 비교합니다. 공인과 공인을 함께 거쳐하게 하여 상은 후하게 주고 벌은 가볍게 준다면 10년을 벗어나지 않아 사람마다 모두 정교한 공인이 될 것입니다. 공인

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20)

공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인의 지위 향상, 보수 상향책정, 공인의 자긍심 살리기와 책임부여, 공인의 집단거주를 비롯한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와 수레 기술자의 대우 문제를 다룬 글 「사정리의지검구견이길대서(謝鄭吏議志儉求見李大吉書)」에서 제기한 공인 양성책이 이 분야의 가장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주장인데, 이강희 역시 그러한 주장에 보조를 맞추어 적극적인 공인 양성책을 주장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도량형(度量衡)의 전국적인 통일, 중국 일본으로부터 선진적인 기계 공구의 수입과 외국의 노련한 장인으로부터 단련법의 습득을 통한 기계의 개량을 주장하였다.²¹⁾ 그렇게 시행한다면, 조선에서의 수레 제작이 불가능할 것도, 비경제적일 것도 없다는 것이다.

수레의 유용함과 수레제작이 충분히 가능함을 역설하는 한편으로 이강희는 정책을 담당하는 조선의 관료들이 지닌 무사안일함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함을 애석해하였다. 그는 나아가 수레의 제작이 국방의 문제, 위대한 국가의 건설에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수레의 제작법을 배우기 위해 북학(北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20) 「車說」. “若令謀國者, 分其祿而賞其身, 物勒工名, 較其精麤, 工与工處, 厚賞輕罰, 不出十年, 人人皆工而精矣. 何患無工乎?”

21) 車說」. “凡諸斤鑿刀鋸之等, 或留之燕市, 或求之倭館, 又學煅鍊之法於外國老冶, 就次行之, 器械何患不精乎?”

2) 선박제도에 대한 분석

선박 제도에 관해서는 개론적인 내용이 『삼재도회(三才圖會)』를 비롯한 일부 백과전서적 저서에 수록되어 있고, 거북선의 제작에 관한 글이 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박제작을 다룬, 조선 지식인의 전문적 저술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 박제가가 『북학의』에서 선박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어 조선 선박제도의 미비함을 통박하였으나 그 역시 소략하기만 하다. 이규경(李圭景)은 「제선제도변증설(諸船制度辨證說)」에서 자신이 젊은 시절에 『심유방(心遊方)』이란 저서를 통해 선박 제도에 관한 사실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고 하면서 만년에 동남아시아의 배를 비롯하여 서양의 선박제도를 살핀 경험을 가지고 논의를 펼치는 등 학자들 사이에 선박의 제작을 논한 글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단행본 저서는 없다. 그런 점에서도 이강회의 「운곡선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가 선설(船說)을 짓게 된 배경은 서문에서 상세하게 밝혔다. 집주인 문순득이 5년간 표류하고 돌아온 뒤 구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정약전이 『표해록(漂海錄)』을 썼다. 문순득은 당시 눈여겨 본 외국의 선박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하여 『표해록』에는 관련 사실이 적지 않게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정약전은 당시 기거가 불안정하여 대강만을 기록하였을 뿐 세세하고 정교한 내용까지 다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강회가 그로부터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 기록하고 다시 문순득에게 들려주어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 서문의 주요한 내용이다.

「운곡선설」은 서문, 본론, 발문으로 구성되었고, 본론은 본

문, 난해한 구절에 단 주석,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안설(按說)로 구성되었다. 이 저작을 1818년에 지어 「거설」의 뒤에 붙인다고 한 기록으로 보아 수록 운송수단의 양대 도구인 수레와 선박에 대한 저술을 씬으로써 운송수단에 대한 제안을 체계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선설」을 겨울에 완성한 다음 해인 1819년 2월에 흑산도 해안에 중국 배가 표류하였다. 그는 그 중국 배에 올라 배의 요모조모를 관찰하고, 「선설」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중국 선박의 제도까지 상세하게 기술하여 『현주만록(玄洲漫錄)』을 완성하였다. 또 이강회는 『운곡만필(雲谷漫筆)』이란 현존하지 않는 책에서 1816년 진도군 도합도(叻哈島)에 출몰한 영국 군함의 위용과 조선 배의 초라함을 대비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기도 하였다.²²⁾ 이강회가 선박의 제도와 조선 해안에 출몰하는 외국배에 대한 조사와 관찰에 깊은 관심을 가진 배경에는 외국배에 대한 당시 조선인의 공포심과 우려를 저들 배의 우수성을 도입함으로써 극복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강회는 배에 관한 자신의 기록이 ‘국가를 경영하는 자의 큰 정사’(謨國之大政)라고 자부하였다. 수레와 마찬가지로 선박 제조법은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적인 비중을 갖는 중대한 정책과제라고 판단했다.

그가 서술한 선박 제조법은 문순득이 견문한 유구, 마카오, 중국, 필리핀 등에서 얻은 선박 제조법을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표류한 서양 선박으로부터 획득한 지식까지 첨부하였다. 특

22) 丁若鏞, 『備禦考』 권7 ‘영길리설(喆喇說)’에 인용된 글.(『與齋堂全書補遺3』, 경인문화사 영인, 1989년, 585면.)

히, 필리핀 선박의 제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외국 선박과 조선의 제도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상호간의 우열과 조선 선박의 특징까지 부각되었다. 사이사이에 친구인 이청의 견문과 견해를 소개하면서 조선 선박의 취약성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다음에 「운곡선설」에서 제기한 주요한 사실을 살펴본다.

「운곡선설」에서 비중을 두어 서술한 내용은 조선의 선박제도와 구별되는 외국의 선박제도인데, 배워서 적용이 가능한 장점을 집중적으로 서술하였다. 다루어지고 있는 구체적 부분을 적시하면, 갑판, 높이, 못을 박는 법, 배의 창고와 방, 문과 사다리, 배의 키, 돛대, 돛, 닻과 닻줄, 급수정(汲水艇), 취사실, 누수(漏水), 대포(大砲), 배의 형률(刑律), 접안시설 등이다. 특히, 외국 선박의 우수함, 조선 선박의 취약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문에서는 외국 배의 특징을 서술하고 저자의 안설(按說)에서는 조선 배와의 비교나 비판을 전개하였다. 갑판을 다룬 부분을 하나의 사례로 든다. 먼저 본문이다.

선박은 가로 널판-방언으로는 가롱(駕櫓)이라고 부른다-을 설치하지 않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두 자를 띄워 기둥을 뱃전에 붙이고 쇠못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박았다. 이러한 까닭에 배의 속은 텅 비어 넓다.²³⁾

가롱(배에서 간살을 지른 널빤지를 뜻하는 우리말)이 없어서 배안의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외국배의 특징을 소개한 대

23) 「雲谷船說」. “凡舶, 不施橫格-方言謂之駕櫓-, 從頭抵尾, 間二尺, 貼柱於舳舻. 用鐵釘固衽. 是故, 其腹枵然而曠.”

목이다. 이에 대하여 이강회는 개인의견을 이렇게 개진하였다.

우리나라 가롱의 방법은 大中小의 차이를 따질 것 없이 반드시 세 개의 널판을 사용하여 층층이 서로를 제어하니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도의 졸렬함이 이런 지경이다. 따라서 선박의 내부가 막혀서 물건을 들이거나 내갈 때 천만 가지로 곤색하다. 무릇 큰 물건-대나무 등속-을 실을 때에는 안에 실지 못하는 것은 가롱이 가로막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 위에 맡겨두므로 배가 쉽게 상하고, 물에 들어가면 두 배나 흔들린다. 어찌면 그리도 어리석은가? 이 선박은 보통 배의 머릿부분에 큰 구멍을 뚫어서 큰 물건이 있으면 구멍으로 끌어당겨 배안에 안치한다. 따라서 배가 손상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다. 마땅히 염두에 둘 일이다.24)

외국배와 비교하여 조선 배의 결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운곡선설」은 이러한 조선 배의 결점과 개선책에 대한 의견이 곳곳에서 제시된다. 조선 선박제도의 허실(虛實)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한 가지 사례를 더 든다. 취사실에 대한 설명대목이다.

취사실은 상층(上層)에 설치하여 그에 기대 긴 난간을 만들고

24) 「雲谷船說」. “我邦駕龍之法, 毋論大中小, 必施三格, 層層相制, 所以防戾也. 拙哉制也! 如是也, 故船腹窒塞, 凡任物出物, 千窘萬艱. 凡載長物-竹木等-, 不敢藏之於腹, 以駕龍之橫室也. 故任之於上, 舶必易傷, 入水倍蕩, 何其愚也. 此舶, 船頭例穿大穴, 凡有長物, 從穴引入, 安于腹中. 故舶不傷不蕩, 宜念之哉!”

좌우에 작은 벽돌을 놓아 쌓는다. 위에는 목곽(木匡)을 써서 솔을 걸고 유회(油灰)를 발라 봉한다. 위의 휘장은 소가죽으로 만들고 가죽은 기름으로 처리하여 끄으름에 물들지 않게 한다.

식사를 할 때에는 종을 쳐서 모여 식사한다. 측간은 현(舷)밖에 설치하는데 좌우에 각각 하나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배는 취사실을 선박의 복판[腹]에 설치하고 투시(套時)라 부른다. 火匠(원주: 밥을 짓는 자이다.)이 연기를 내면 복판에 연기가 자욱하여 뱃사람들은 의복과 용모가 흑귀(黑鬼)로 변한다. 복판 내부는 겹겹이 그을려 비가 오면 젖었다가 별이 들면 얼룩이 지고 바람이 불면 떨어져서 거칠고 더럽기가 헤아릴 수 없다. 더럽고 습기찬 아래에 머무는 이 풍속을 그 누가 고칠 수 있을까?25)

외국 배의 취사실 제도의 장점을 설명하고, 뒤에 우리 배의 취사실의 허점을 제시하여 비판하고 있다. 이렇듯이 이강희는 외국 배의 장점을 포착함으로써 조선 배가 지닌 결점을 보완,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는데, 배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에 골고루 할애하여 서술하였다.

이강희가 선박제조술에 관심을 지닌 이유는 위에서 밝힌 것처럼

25) 『雲谷船說』. “凡炊室, 安于上層, 依之長欄. 左右築小壁, 上用木匡, 以安鼎-或四或五-, 油灰以縫. 上幔用牛革, 革用油治, 令煤不染.” “凡食時, 鳴鐙聚食. 其圍室, 足于舷外, 左右各一.” “案: 我船炊室, 安于船腹, 名曰套時. 火匠-炊飯者-熱烟, 滿腹烟煤. 故船人衣服狀貌, 變成黑鬼, 腹內墨黴. 雨則濕漏, 暘則黏汚, 風則墜落, 麤陋罔測. 惡濕居下之俗, 誰能改之?”

럼 경제적이고 사용편의적인 데 일단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나라밖에 강성한 외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륙에는 외적을 막을 방비가 없으므로 배야말로 외적의 침략을 막을 군사용 도구라는데 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잔약하고 용렬한 상고(商賈)들이 나무를 조각하여 주족(湊輻)하고 피를 엮어 바람을 채우며 벗질을 꼬아 닳을 내리는 제도의 경우에는 누추하므로 따질 필요조차 없다. 전선(戰船)·방선(防船)·대맹(大猛)·사후(伺候)와 같은 선박에 이르면 등급이 전혀 없이 옛날의 질박한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거친 제도가 가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엉성하기가 한량이 없다. 당당한 만승(萬乘)의 나라로써 삼면의 바다를 거머쥐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강성한 이웃이 있는데 안에는 보위할 방패가 없다. 어찌면 계획이 없기가 이다지도 심한 것일까? 우리는 매양 한산도 대첩을 사방의 나라에 요란하게 빼긴다. 우리의 배는 질박한 반면 저들의 배는 정교하고 부드러워, 질박한 배로 부드러운 배를 부딪치면 도처에서 부숴지기 때문에 승리를 거뒀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덕을 겸비한 이충무공이 출현하여 출기입신(出奇入神)한 전략으로 적의 예봉을 꺾은 것이지 어찌 전선(戰船)의 공이겠는가? 원균(元均)의 패배는 우리 전선으로 초래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일찍이 한스럽게 여겼다. 26)

26) 「雲谷船說」. “至於我邦殘商賈之等削木湊輻, 織茅盛風, 綸纒下旋者, 陋矣莫論. 至於戰船防船大猛伺候之等, 漫無等級, 古質猶守, 非但麤笨

선박의 제조가 실리를 얻는 수송도구에 그치지 않고 국방과 긴밀하게 결부된 도구라는 견해를 밝혔다. 삼면이 바다인 조선이 외국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할 때 전선이 심하게 영성한데도 오히려 조선 전선의 우수성이라고 자랑하는 전도된 상황을 지적하였다. 조선이 자랑하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역시 전선의 우월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충무공의 탁월한 전략에 승전요인이 있다고 그는 분석하였다. 전선의 제도적 정비와 보완을 통하여 외적의 침략에 대비할 것을 강조한 그의 주장은 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이강회는 서문에서 선박제도를 다룬 이 책이 ‘국가를 위해 계획하는 자의 큰 정사’라고 했고, 발문에서는 ‘경제(經濟)에 관한 뜻을 붙인’저서라고 밝혔다. 선박의 문제는 선박 자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 국방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생각이 거듭 확인된다.

4.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주장과 논리

수레와 선박의 운용과 제작을 주장한 이강회의 저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상적 입장은 무엇일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이용후생(利用厚生)이다. 수레를 운행하자고 주장하고,

可憎，抑亦疏漏巨極。堂堂萬乘之國，坐據三面之海，外有強隣，內無保障，何如是不計甚矣！我人每以開山之勝，誇耀四國，以爲我船質樸，彼船精軟，以樸觸軟，到處糜碎，由此取勝。然當是之時，天佑我邦，生出智德兼全之李忠武，出奇入神，以挫敵鋒耳。是豈戰船之功哉？若元均之敗，則非我船乎！我嘗恨之。”

외국 배의 제도를 수용하여 선박을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근거를, 그는 피폐한 민생을 구제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경제에 일조하는 실제적 효용성에 두었다. 수레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일환이요 민생을 편안히 하고 국가를 부강케 하는 것이므로 누가 거부하겠느냐고 강하게 반문하였다. 27)

이강회는 정약용과 정약전으로부터 직접 학문을 전수받았다. 정약용이 전개한 학문의 중심이 경세치용(經世致用)에 있는 것처럼 28) 이강회 역시 학문의 중심을 경세치용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가 『주례』를 공부하는 중이고, 『주관연의(周官演義)』를 지었다고 중국인에게 밝힌 사실을 통해서도 그가 학문의 중심을 어디에 놓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를 놓고 볼 때 이강회는 박지원과 박제가의 뒤를 이어 이용후생학(利用厚生學)에 경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조선이 “황제 요순(堯舜) 우탕(禹湯) 문무(文武) 주공(周公) 같은 성인과 성인이 서로 전해온 이용후생의 제도가 있건마는, 이것을 중국에서 배우지 않고, 옛 경서를 통해 연구하지 않는다. 지금껏 그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채 거의 3천년 동안 답습해왔다” 29)고 이용후생의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그는 또 1818년 11월에 쓴 「운곡선설」 발문(跋文)에서 다음과 같이

27) 「車說答客難」. “況設車制, 以之利用厚生, 以之安民裕國者, 孰敢怨乎? 誰敢侮乎?”

28) 실학의 계보와 정약용의 실학이 지닌 특징에 대해서는 이우성, 「實學研究序說」(『韓國의 歷史像』, 창작과비평사, 1982.)을 참조하였다.

29) 「車說答客難」. “雖然, 黃帝堯舜禹湯文武周公, 聖聖相傳利用厚生之制, 不學於中國, 不考於古經, 尙今不垂三千年因循.”

말했다.

지난날 선왕조 때 연암 박공이 지은 『열하기(熱河記)』와 초정 박공이 지은 『북학의(北學議)』는 무릇 성의 축조, 벽돌 제조, 맷돌[연마(碾磨)], 윤기(輪機) 등의 제도에 관해서 논한 바가 상당히 자세하여 실용의 문장이라 할 만하다. 저 두 분의 현자는 외이(外夷)에 태어나 上國을 흠모하였다. 논하여 저술한 저서는 나라를 걱정하고 세상을 개탄하는 말 아닌 것이 없다. 두 분은 도를 논한 분들이라 말해도 좋다. (중략) 이 책은 문순득의 말에서 출발하여 내 손에서 완성되었다. 이 책의 내용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고 졸렬하지만 『열하기』와 『북학의』에서 듣지 못한 것과 『무비지(武備志)』·『형천(荊川)』에서 보지 못하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여 글을 완성하여 경제(經濟)에 관한 뜻을 붙인다.³⁰⁾

이 글을 읽으면 그가 「운곡선설」을 짓게 된 동기가 국가의 경제와 국방을 위한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로 하여금 저술의 동기를 제공한 주요한 선배 사상가가 다름 아닌 박지원과 박제가였음도 분명하게 밝혔다. 이강희는 그들이 ‘도를 논한 분들이라 말해도 좋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태사(太師) 태부(太

30) 「雲谷船說」 跋文. “在昔先朝時, 燕巖朴公纂『熱河記』, 楚亭朴公制『北學議』, 凡築城燒壁碾磨輪機之制, 所論頗詳, 可以爲實用之文矣. 彼二賢生於外夷, 欽慕上國, 其所論纂, 莫非憂國嘆世之言也. 如二公者, 亦可以論道矣. … 是書也, 出之文言, 成之吾筆, 雖極愚拙, 『熱河』 『北學』之所未聞, 『武備』·『荊川』之所未睹, 故潛心研精, 如是成篇, 以寓經濟.”

傅) 태보(太保)의 삼공(三公)을 설치하여 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며[論道經邦] 음양을 조화시키게 한다.”는 고위 정책입안자의 정치행위를 의미하는 말로 『상서(尙書)』 「주관(周官)」에 나온다. 또 『주례』 「고공기(考工記)」에도 앉아서 도를 논하는[坐而論道] 王公의 일을 말하고 있다. 공인의 일은 말단의 일이 아니라 국가정책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이라는 견해를 비치는 것이다.

그는 저들 선배 사상가들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들이 미처 다루지 못한 선박 제조법에 대해 쓰려 하며, 그 목적은 결국 국가의 경제와 국방임을 자부하였다. 그런데 선박만이 아니라 수레도 마찬가지다. 그는 수레의 통행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선왕(齊宣王)과 쿠빌라이 칸의 사례를 들었다. 쿠빌라이가 북로(北虜)출신으로 중국에 들어와 주인이 되었으므로 부족할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동쪽을 개척하고 서쪽을 경략(經略)하며 남쪽과 교전한 욕심을 낸 사실(史實)을 거론하면서 그 동기를 탐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작은 행복에 안주하는 소인의 욕망에 머물지 않고 치군택민(致君澤民)하려는 사군자(士君子)의 욕망과 천자(天子) 제후(諸侯)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낮이 익지 않은 방법이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수레의 제작이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하나의 길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여기서 이강회가 다른 사례가 아니라 쿠빌라이 칸의 사례를 든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는 요순 임금이나 우임금 탕임금을 배워야 할 모범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나와 국가에 필요하다면 오랑캐에게라도 배워야 한다는 박제(박제)를 비롯한 북학파의 신념과 정확히 부합한다. 정책을 제시하며

쿠빌라이 칸을 배워야 할 사례로 든 것은 모험이라고까지 생각될 정도다.

두번째로 국방의 중시다. 국방문제를 중시하는 경향은 그의 스승인 정약용과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의 선설(船說)에 수록된 내용이 국방관계 저술인 『무비지(武備志)』(明 茅元儀 著, 1621 간행)와 『荊川(武編)』(明 唐順之 著, 1549년 집록)에서 보지 못한 내용이라고 하였다. 본문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선박의 제도가 결국에는 국방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선박이 국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레조차도 국방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거설」의 마지막 대목에서 국가의 안위가 수레 하나에 있다는 말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힐난에 대해, 이강희는 “만약에 풍신수길의 수명이 몇 년 더 연장되었거나 청태조의 뜻이 큰일을 하는데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겠는지요? 예의는 정녕코 폐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무비(武備) 또한 완전히 버릴 수 있을까요?”³¹⁾라고 반문하여 수레의 일이 최종적으로는 국방과 깊이 관련을 맺는다고 주장하였다.

세번째로 주요물자의 자국 생산과 기술의 독립이다. 그는 조선이 법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제조업은 갖추어지지 않은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았다. 그는 제조업의 발전을 공인의 교육을 통해 이룰 것을 역설하였다. 기술 분야에서 외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중요한 군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자

31) 「專說」. “若使平秀吉少延數年, 清太祖志不在大, 則我之禮義, 其能全乎? 禮義不可廢, 武備亦其全棄者乎?”

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논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것을 바느질 도구인 바늘의 제조에 대한 논의로 설명하였다.

그대는 우리나라의 법이 진선진미(盡善盡美)한 상태라고 보며, 제조하는 것이 크게 갖추어졌다고 보는가요? 수레에 관한 논의는 잠시 그만두고 나는 다른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먼저 말해 보겠소. 부인네의 일은 아홉 가지 직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인네의 일은 바늘의 도움을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동방 수천 리 일체 중생의 의상은 어느 하나 바늘을 쓰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른바 바늘을 버리는 장인이 있습니까? 만약 중국에서 하루아침에 사신의 교역을 금지하여 익보(益補) 한 보쌈도 압록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막으면 온 나라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할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비단 의복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망건 만드는 자는 망건을 만들지 못하여 온 나라 사람이 머리를 짤 것이 없어집니다. 바늘조차도 이런 지경이니 다른 것이야 말할 여부가 있겠는지요?32)

조선에 바늘을 만드는 장인이 없기 때문에 일체의 바늘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만약 중국이 바늘의 수출을 금지하는 돌발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33) 안정된 의식주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생산

32) 「車說答客難」, “子則以我邦之法, 謂盡善盡美, 製造大備乎? 請姑舍是, 吾將舉一而先言之. 嬪婦者, 九職之一也. 嬪婦之紅, 資成於鍼. 方言 鍼之縫衣者名曰般捏. 環東土數千里, 一切衆生衣之裳之, 非鍼之用, 無以爲功. 然我邦有所謂攻鍼之工乎? 若中國一朝立禁, 使段益補一裹, 不令渡鴨綠, 舉國之人, 將圖知攸措矣. 非但衣服然矣. 網者不得爲罟, 一國之人, 無以裹頭矣. 鍼猶如是, 他尙何說.”

도구의 자국생산이 요구된다. 바늘은 일상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도구인데도 자국에서 생산하지 못한다. 바늘조차도 이러하니 국가의 안위가 걸린 산업의 자국생산 실태는 말할 나위도 없다는 판단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선박의 닻을 오르내리는 거중기(舉重機)를 소개하면서 이강회는 “우리나라의 전선(戰船)에 쓰는 쇠로 만든 닻은 원래 우리 제도가 아니라 외국에서 무역해온 것이다. 닻 하나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니 배는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 시험삼아 이 방법을 한 번 보라! 방차(紡車)를 거칠게 만들어서 많은 장정들이 어영차 이어차 매패를 써서 닻줄을 잡아끄는 것이 너무도 고생스럽고 힘이 들지 않는가?”³⁴⁾라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 선박제도의 부실함을 넘어서 중요한 부품을 조선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 33) 바늘을 사례로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도구를 자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비슷한 시기에 이용후생의 관점을 견지한 학자들인,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극명하게 나타난다. 『임원경제지』 제2책 437면, “東人不知造針, 必待燕留而後始給用. 如此日用不可缺之需, 亦須仰給於他域. 萬一遠瀋之路三五闕而不通, 則鴨水以東之人, 皆將裸耶? 天工開物有造針法, 苟能按法打造流通域中, 則亦利用厚生之一助也.” 『오주연문장전산고』 「布針辨論說」, “凡裁縫, 非細針, 則未可奈何? 物雖細矣, 所關甚巨, 無針則何以縷之襟之? 衣被烝民耶? 今所用布針, 自燕來者也, 以銅錢一文, 市三四針, 則其價亦不翔貴. 我人藉此, 不學其製法, 若一朝滄桑變燴, 交易梗塞, 則從何留取也. 東土習俗, 素以姑息苟且, 因人靠他, 視作伎倆, 故每事若是蔑裂, 亦可憫然. 嘗繙閱書牒, 略知其製法, 而其妙專在於水火健法, 健即淬鐵之名也. 日後中原有事, 不得相通, 則必求諸倭館, 而未聞誰從倭. 雖或自倭購取, 其直當倍蓰於舊日, 莫如自我鑄用, 募人學得於中原良工, 亦導民成習之一道也.”
- 34) 「雲谷船說」, “謹案, 我邦戰船鐵錠, 原非我制, 質之外國者也. 一錠不得自造, 船尚何說哉? 試看此法, 轟制紡車, 衆夫搢搢呼耶伊嘎, 以挽其纜者, 不亦勞且苦哉!”

실태를 크게 우려하였다. 박지원이나 박제가는 국가간 무역에 대해서는 강조하면서도 주요 물자의 자국생산에 대해서는 부각시키지 않았지만 이강희는 이 점을 크게 부각시켰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네번째로 문호의 개방과 유통의 주장이다. 문호의 개방, 유통의 중요성을 역설한 주장에 대해 「제거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박제가와 비슷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왜인들은 당초에는 우리나라로부터 문자를 배워갔으므로 그들의 제조법이 정교하고 온갖 물건이 문명의 수준에 이른 것은 우리가 어리석고 저들이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 나라에 근본적으로 과거용(科擧用) 문장을 쓰는 법이 없기 때문이요, 게다가 백년 이래로 장기(長崎)와 살마(薩摩)의 길에 천하의 외국 선박이 두루 왕래하여 온갖 화물과 기용(器用)이 서로 교역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보고 들어 익숙해져서 날마다 정교한 상태로 진보했기 때문이다. 박초정(朴楚亭)의 『북학의』는 혈땀을 수 없다. 35)

그는 일본의 제조업이 정교한 기술을 소유하고, 온갖 물건이 문명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그런 수준에 이른 것은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 기술을 향상시킨 데 있다고 보았다. 기술발전과

35) 「諸事說」. “幾聞我國一有其法乎! 倭人文字始從我國得學, 而其製造精巧, 百物文明者, 非我愚而彼智也. 國法本無科文, 且百年以來, 長崎薩摩之路, 周通天下之番舶, 凡百貨物器用, 相與交易, 見聞熟習. 所以日趨於精也. 朴楚亭 『北學議』 不可毀也.”

일본의 제조업과 기술력 수준에 대한 그의 주장과 이해는 박제가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 점에서 이강회는 박제가의 사상적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다섯번째로 그는 국토의 개간과 간척 등 개발을 중시한다. 그는 중국의 사례를 들었다. 첫 번째로 강의 물길을 수 백 리 멀리까지 돌림으로써 수만의 경지를 개간하는 역량, 두 번째로 운하를 파서 북경까지 뱃길을 이용하지 않고 물자를 수송하는 역량을 소개하였다. 이렇게 인위적인 역량을 투여하는 것이 백성들이 이익을 얻고 국가가 부유해지는 방법의 하나라고 하였다. 물길을 뚫기 위한 공사에 수많은 노력이 들어가지만 그 결과 거대한 경지를 획득하므로 포기할 수 없으며, 운하를 파는데 수많은 노력이 들어가지만 그 결과 손쉽게 물자를 수송하므로 시행한다고 하였다. 유용한 강물을 헛되이 바다로 흘러가게 하지 않고, 유용한 화물을 헛되이 바다의 풍랑에 잃지 않는 소득을 위해서라면, 작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개발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인간의 물리적 노력을 투여하여 개발할 것을 주장하는 그에게는 조선이란 나라 전체가 인위적 노력을 가하려는 시도가 없는 소극적이고 무사안일 위주의 풍토로 보였다. 「제거설」에서 제기한 문제를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세계는 천지가 개벽하여 진펄로 흐르고 건조한 데로 가는 것을 제외하면 따로 인간의 노력을 가한 일이 없다. 따라서 두 교외 사이로 반드시 큰 시내가 수 백 리를 가로질러서 아득하게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동쪽과 서쪽 교외의 땅은 거북

이 등처럼 갈라져 파비밭이 되어 있다. 무지한 농민이 물을 가리키며 “물아, 물아, 어째 그리 쓸모가 없느냐!”고 탄식하면서 물만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안타깝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물의 본성이다. 물이 인간의 노력을 받지 않고 자연히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36)

자연을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강회는 개발론자의 논지를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어떠한 실학자보다도 설득력을 가졌다.

5. 북학과(北學派)와 정약용 북학론(北學論)의 계승문제

이강회는 「제거설」에서 “박초정의 『북학의』는 혈뜰을 수 없다”라고 하였고, 「운곡선설」 발문(跋文)에서 『열하일기』와 『북학의』를 거론하며 박지원과 박제가가 “저 두 분의 현자는 외이(外夷)에 태어나 上國을 흠모하였다. 논하여 저술한 저서는 나라를 걱정하고 세상을 개탄하는 말 아닌 것이 없다. 두 분은 도를 논한 분들이라 말해도 좋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강회의 사고 속에 두 학자의 저술이 끼친 영향의 깊이를 파악할 수 있는 언급이다.

이강회가 특히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은 박제가의 북학론(北學

36) 「諸事說」, “我邦世界, 天開地闢, 流濕就燥之外, 未嘗別下人功. 故兩郊之間, 必有大川, 橫注數三百里, 注洋浩渺, 而東郊西郊龜坼而苗枯. 無識農夫, 指水而歎曰, 水哉, 水哉! 何其無用. 只怨其水, 不咎其人. 嗟乎! 水之注下, 水之本性也. 水何得不受人功, 自然變化乎?”

論)이다. 그의 저작 곳곳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기술발전에 관한 서술이나 외국 상선과의 교역 등등 이강회의 사유 속에 박제가의 영향은 다방면에 걸쳐있고, 정도가 심대하다. 그 영향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항이 바로 박제가가 가장 힘주어 주장한 수송수단의 도입과 혁신적 개혁의 논리를 이강회가 일관되게 펼쳤다는 점이다. 특히 1819년 해안에 표류한 중국 배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묘사하고 그 배에서 배울 만한 제도적 장점을 상세하게 서술한 『현주만록(玄洲漫錄)』의 서술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강회는 조선이 입국한 이래로 해안에 표류한 배를 이용하여 유용한 법을 자세히 강구하여 선박을 개량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선박제도를 답습해왔다고 비판했다.³⁷⁾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북학의』에서 이미 설득력 있게 개진되었다. 『북학의』 내편과 진소본에서 중국 배의 장점을 조선 배의 결점과 대비하여 논하였는데 두 항목은 거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의 해안에 표류한 표류선의 선진적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 좋은 선원으로부터 선진 기술을 배우자는 주장은 양쪽 글에 모두 나온다. 직접 중국에 가서 배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표류선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북학의 한 방법이라는 박제가의 소신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박제가의 북학론을 충실하게 계승한 학자가 바로 정약용이었다. 정약용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조선에서는 선박을

37) 『玄洲漫錄』. “嗟呼! 凡我國立國以來, 外船之漂到我洲者, 殆無虛月, 而所謂司浬量船, 都以皮糠虛飾文具, 此等妙法一不究詳. 三面海國, 膠守陋劣, 識者之限, 寧容已哉!”

건조하는 기술이 중요하지만 기술은 고루한 수준인 반면,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선박 제도는 기묘하고 견고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38) 그는 또 표류선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표류한 지역의 지방관이 주관하여 선박의 제도를 조사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보고하며, 조정에서는 이용감(利用監) 소속의 관리를 파견하여 상세히 조사하게 한 후 표류선과 똑같은 선박을 제작하게 한다면 외국에서 배워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39)

이강회가 문순득으로부터 들은 선박제도를 「운곡선설」로 체계화하여 저술하고, 그 다음해에 표류한 중국 배를 관찰하여 『현주만록』을 저술한 것은 박제가와 정약용으로부터 계승된 북학의 논리를 충실하게 적용한 결과물이다. 그는 관찰의 결과를 적어놓은 내용이 현재의 실용에 긴밀하게 연관되므로 보는 자가 범상히 보아 넘기거나 쇠귀에 경읽기 식으로 지나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40) 그런 발언의 태도 역시 박제가의 논조와 흡사하다.

이러한 하나의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이강회가 박제가와 정약용의 영향 하에서 실천적으로 저술에 착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방과 기술발전, 제도의 개혁과 개선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도 그들이 끼친 영향의 정도를 엿볼 수 있다.

38) 정약용, □□牧民心書□□ 奉公六條, 「往役」.

39) 정약용, □□牧民心書□□ 奉公六條, 「往役」; □□經世遺表□□ 권2, 冬官工曹 事官之屬, 「典艦司」. 김문식, 「정약용의 대외 인식과 국방론」, 『茶山學』 제4호, 2003. 129~162면.

40) 『玄洲漫錄』. “旣又觀奠船, 可知中國與外番船政之盛水不漏, 極臻精緻也. 今其所錄, 固關當今之實用, 覽者庶毋泛眼風耳之過也.”

이강희가 그들 선배 학자들과 공유하는 사고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국가가 당면한 위기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나라의 의리는 무위(無爲)를 최상으로 여긴다. 한묵(翰墨)에 소요하며 산수에 노니는 것이 수령이 해야 할 맑은 취향이요, 대체(大體)를 견지하고 연못의 물고기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 것이 감사의 좋은 계책이며, 위로는 천리를 순종하고 음양의 이치를 조섭(調攝)하는 것이 대신(大臣)의 요결(要訣)이다. 장탕(張湯)과 조광한(趙廣漢)은 너무 가혹하다며 무시하고, 소유일천(蘇孺一天)은 너무 급박하다며 논란을 삼는다. 관중(管仲)·안자(晏子)와 같이 논의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명칭하게 입을 헤벌린 채 저절로 태어나 저절로 죽는다. 그리하여 위에서는 국사가 그릇되고 아래에서는 백성이 곤궁에 허덕인 역사가 오래다. 간혹 백성을 구하고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정책이 한번 상주(上奏)되면 취모역자(吹毛覓疵)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날조하여 사헌부가 탄핵하고 의정부에서 죄를 청한다. 사람마다 이러한 전통에 빠져들어 집안마다 이 법을 전수하여, 끝내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 극단에 이르렀다. 41)

41) 「車說」. “我邦之義理, 以無爲爲上. 逍遙翰墨, 遊戲山水, 民牧之清趣也; 矜持大體, 淵魚不察, 監司之得計也; 上順天理, 變理鄧陽, 大臣之要訣也. 張湯廣漢, 慢之以太酷, 蘇孺一天, 論之以太迫, 管仲晏子, 蓋與爲比, 于于喙喙, 自生自滅. 於是事非於上, 民困於下, 厥有年矣. 其或有救民裕國之策, 一登章奏, 吹毛覓疵, 搆虛捏無, 憲府劾之, 政院請罪. 人冒此套, 家傳此法, 終成難救之疾, 至於今而極矣.”

조선 사회의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개진된 대목이다. 그저 인순고식적으로 낡은 체제에 기생하는 사대부의 행태가 그의 입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되고 있다. 앞서 자연조차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자고 주장한 점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볼진술이다. 그는 명분이나 의리보다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그런 취지에서 그는 의리가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이라고 하며,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들이 직접 싸우는 것보다는 살신성인하는 행위만을 중시한 사실을 들어 비판하였다. “예의도 참으로 폐할 수는 없으나 무비(武備) 역시 전연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하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국방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위기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의 풍속 하에서 하루 아침도 살 수 없다”⁴²⁾면서 유생의 도태, 수레의 유통, 외국과의 통상 등 변법을 강력하게 주장한 박제가의 생각과, “터럭 하나도 병통이 아닌 것이 없는 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 다음에라야 그칠 것이다”⁴³⁾라는 정약용의 제도개혁의 정신과 잇닿아 있다.

이강회는 두 사람만큼 국가의 전 부분을 고찰한 체계화된 저술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수레와 선박이라는 구체적 대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현재의 법체제를 준수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과거의 법을 따르지 않고 개혁한 사례로 그는 조선 전기의 세종 임금과 후기의 정조 임금을 들었다. 그는 세종이 아악(雅樂)을 정비할 때 굳이 기존의 제도

42) 박제가 저 안대회 역, 『북학의』, 돌베개, 2003, 214면.

43) 민족문화추진회, 『국역경세유표』, 40면.

를 관용(慣用)하지 않고 율(律)을 자세히 살펴서 소리를 바로 잡은 사실과 정조 임금의 화성(華城)을 축조할 때 포루(砲樓)와 현안(懸眼)을 새로 만든 사실을 제시하였다. 과감한 개혁의 당위성을 옛 제왕의 실천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가 세종과 정조를 개혁 군주의 두 모델로 삼은 것 역시 안목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맺음말

현대의 한국은 선박과 자동차 생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2백년 전 학자들이 수레를 사용하자고 고군분투하며 주장한 실정을 생각할 때, 더욱이 18세기 초반 이강회가 조선 선박의 열악한 제도적 미비를 통렬하게 비판한 실정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현격한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변화와 차이 사이에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미묘한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강회는 다산 정약용의 가장 빼어난 제자의 한 사람이다. 그는 경세치용을 중심으로 학문을 전개한 다산의 충실한 제자다. 그러면서 그보다 한 세대 앞선 시기의 박지원과 박제가가 힘주어 역설한 이용후생(利用厚生)의 학문을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다산은 그 이전에 제기되었던 다양한 실학적 경향을 집대성하였다. 다산은 제도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 『경세유표』를 비롯한 저작에서 이용후생의 관점을 적용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다산이 미처 구체화하지 못한 각 분야에 대한 이용후생의 방안 가운데 일부가 그 고제(高弟)인 이강회에게서 진전을

보였다. 박지원 박제가에게서 꽃을 피운 이용후생의 학문을 다산의 제자가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결과물을 내어 놓았다. 그 점은 학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강회는 『주례』의 학습과 연구를 통해 학문의 기반을 닦고, 수례와 선박의 제작에 관한 저술을 남겼다. 다른 저작들까지 포함하여 그의 저작은 실증과 실용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추구하였다. 그의 나이 30세를 전후한 때의 현존하는 저작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 그의 학문적 성과의 전부로서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현존하는 것만을 가지고도 19세기 학술사의 중요한 학자로 논의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적어도 그가 18세기 중후반의 이용후생학파의 사상적 특징을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있게 전개한 학자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미처 박지원과 박제가의 이용후생학에 영향 받은 19세기 학자들의 견해를 이강회의 그것과 비교하여 검토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한계와, 조선시대의 수례와 선박에 대한 기존 연구나 논의들을 폭넓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서유구와 이규경으로 대표되는 학자들의 이용후생학과 그에 대한 비교 검토는 후속 원고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참고문헌>

- 朴齊家 저 안대회 역, 『궁핍한 날의 벗』, 태학사, 2001.
- 朴齊家 저 안대회 역, 『북학의』, 돌베개, 2003.
- 朴趾源, 『燕巖集』, 계명문화사 영인본.
- 徐有榮, 『林園經濟志』, 보경문화사 영인본.
『林園十六志』, 大阪市立中之島圖書館 所藏

自然經室藏本.

- 이강희(李綱會) 저 김형만·김정섭·안대회 번역, 『雲谷雜著』, 신안문화원, 2004.
- 이강희(李綱會), 『耽羅職方說』·『玄洲漫錄』, 日本 京都大河合文庫 소장 필사본.
『柳菴叢書』·『雲谷雜著』, 문채옥 소장 필사본.
-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명문당 영인본.
- 丁奎英, 『丁茶山全書』 年譜, 문헌편찬위원회.
- 丁若鏞, 『與猶堂全書』, 新朝鮮社 영인본.
『與猶堂全書補遺3』, 경인문화사 영인, 1989년.
- 정약용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경세유표』, 40면.
- 김문식, 「정약용의 대외 인식과 국방론」, 『茶山學』 제4호, 2003. 129~162면.
- 이우성, 『韓國의 歷史像』, 창작과비평사, 1982.
- 안대회, 「이강희의 『柳菴叢書』·『雲谷雜著』 해제」, 『雲谷雜著』(신안문화원, 2004.12.), 13~30면.
- 안대회, 「丁若鏞의 『松政私議』」, 『문헌과해석』 20호, 문헌과해석사, 2002년 가을. 208~225면.
- 朴能緒, 『韓國系行譜』, 보고서, 351면.
- 임형택, 「정약용의 강진유배기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한국한문학연구』 21, 한국한문학회, 1998.(『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에 재수록)
- 陳在教, 「茶山學의 形成과 厄園 黃裳」, 『大東文化研究』 41, 2002.27~60면.
- 최덕원, 『남도의 민속문화』, 밀알, 1994.9.
- 최성환, 「표해록의 후손 문채옥씨를 찾아」, 『新安文化』 제13호, 2003, 12. 62~67면.